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2, 133～15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를 중심으로

허 성 호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15문항의 의미성척도를 개발하였고, 428명(남 193, 여 235)의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280명(남 124, 여 156)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 947명(남 461, 여 486)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전/후 태도변화와 자원봉사활동 의미성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검증하였으며, 태도변화로는 자기개발요소와 사회성개발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기개발요소는 자기평가,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구성하였고, 사회성개발 요소는 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 전/후의 태도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이 갖는 설명력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 봉사활동은 실천한다는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으며, 봉사활동 실천 후의 심리적인 만족도에 해당하는 의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내재화하는 가치와 그들이 기대하는 자기개발 및 사회성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자기개발, 사회성개발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www.kci.go.kr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거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은 풍족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구성원이 고립되는 등의 사회 불균형적 현상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인간성 상실과 소외계층의 급증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동배 외, 2009; 김의철, 박영신, 2006). 이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펼치고는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정부 차원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사회의 정상 유지를 저해하는 사회문제는 증가하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복지욕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시민의 책임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김남희, 2004). 이것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 방안에 모든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많은 비정부 조직체의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배 외, 2009).

즉,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사회분위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소외된 사람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게 되고 사회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관한 이해 및 실천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에 기초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개선을 체험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정태연, 전경숙, 박은미, 2008).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한국사회의 공존과 화합에 필요한 핵심적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정부, 민간단체, 언론계,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효용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덕기, 2001).

한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는 대학의 역할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대학이라는 사회집단 역시,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지역사회 계발 과정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외면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찾아내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허성호, 정태연, 2011). 실제로, 1995년도의 5.31교육개혁이후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의 기능, 연구의 기능, 사회봉사의 기능 중 사회봉사 기능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사회봉사활동이 대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의 방법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

그렇다면 봉사학습을 통해 대학생들이 경험

www.kci.go.kr

하는 심리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특성을 크게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이타성으로 언급하고 있다(조휘일, 1998). 그 외, 헌신, 학습, 조직, 심리적 보상, 희생, 공동체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지속성, 교육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이 거론되고 있고, 연구자의 쟁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나친 희생과 이타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아실현적인 차원의 특성은 언급하고 않고 있다(Ilsley, 1990; 양창삼, 1995; 최용 외, 2005; 이성록, 2007). 즉,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도 그 속성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만큼 적절한 자기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타적 동기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본래의 의의를 토대로 자기실현적인 현실과정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보수성이라는 특성 역시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재검토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 이들이 자기본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보상에 대한 대가를 무보수성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동기적 요소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은수(2003)는 개인의 자아실현욕구를 만족시키며, 능력을 키워야 할 시기에 무보수성의 강조보다는 '인과성의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들 대학생들이 사회적인 기여를 의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심리적인 인과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지적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의사결정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적 기틀이 될 것이다(허성호, 2012).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실천과정에서 살펴본다면,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더욱 사실화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은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어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해 준다(조휘일, 2001). 그리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인 발전이나 태도개선과 같은 의의를 가져다주며, 동시에 공동체의 맥락에서 사회적 책임성·생산성·개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영모, 1993). 먼저, 개인적 의의 차원에서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의 신념을 강화시켜주어 자기 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에 대한 새롭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추구하고 그것에 관한 가장 알맞은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양창삼, 1995). 또한, 성취감으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 당사자에게는 자아존중감의 상승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서봉연, 1999),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이를 통해 자기개발을 이루게 되는데(김범수, 2007),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의 활동과제 기능이 수반되어 사회성 개발로 확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거나 진전되고, 지역사회의 존중감이 조장되어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개발된다(Knowles, 1982; 이진석, 1995).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은 자

www.kci.go.kr

기개발과 사회성개발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자아실현이 향상되며(조휘일, 1998),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이기적 차원의 동기적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여기서 형성된 의미성의 차이는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을 기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허성호, 2012).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의미성이 이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설명변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까지의 연구들(Shindler-Rainmain, et. al., 1984; Moore, 1985; 정명숙, 2006)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도구로서 내재된 의미성을 평가하기보다 만족도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박건실, 2011). 하지만, 만족도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봉사활동 과정에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 상태로 받아들여졌을 때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위, 1995). 혹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들이 보고하는 만족도가 이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도 자신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애쓰는 경향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며(김정배, 2006),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화 전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만을 찾아서 자신에게 이입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허성호 2012). 그리고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참여한 봉사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바람직성의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Williams, et. al., 2002). 이에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할 때, 이미 자기만족이라는 개념보다 사회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찾아서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kus, et. al., 1993).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응하여 획일적인 방향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개념으로 개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획일화되는 만족도의 개념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허성호, 2012). 즉,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개인에게 중요하여 심리적으로 내재하게 되는 본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면서 지니게 되는 의미성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봉사학습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주성수, 2005).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은 자원봉사자들이 내재화하는 자아현실의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절차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 과정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이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선행되는 변수로 두어 그 설명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허성호, 2012).

그리고 조휘일(2002)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을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 개인이 동기적 요소를 비롯하여 여러 관련 요소

www.kci.go.kr

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허성호, 2012). 즉,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내재화 할 때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의미성을 부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의미가 강할수록 자아실현의 강도가 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자기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2007)는 봉사학습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생애발달 과정에서의 성숙과 스스로의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통찰적인 자기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상 봉사활동 대상자는 다양한 대상들과 함께 상호 학습하는 체험학습 과정을 경험하고, 나눔을 통하여 양자 간의 이해 과정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요소를 개발하여 자아실현적 경험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개발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가치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조휘일, 1998; Koury, 2001).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개발 요소의 측정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 평가는 원래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수용척도를 의미한다(차명숙, 2005). 하지만, 본 연구 과정에서 이 척도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자기수용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자아수용이라는 개념적 정의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자아수용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기본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이 보는 객관적 사실에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 투사되어 수용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Hall & Lindzy, 1957). 자기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자아개념 또한 긍정적이며, 이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조학래, 1996). 실제로 사회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되면 자아의 발달수준 역시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며(김현식, 2000), 이것은 자원봉사의 만족도나 의미와도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조 외, 1995).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자아실현의 한 맥락에서는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게 내리는 긍정적 평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Coopersmith, 1967).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며, 자기의 가치나 능력에서 보여 지는 가치성의 개인적 평가로 정의내릴 수 있다(강종구, 1986).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며(김동배, 조학래, 1997; 김진숙, 2000),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다(Conrad & Hedin, 1991; Smith, 1994). 그 중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Wilson(1975)의 연구에서는 지역

www.kci.go.kr

사회를 위해 사회봉사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보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여 여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회적 유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Conrad와 Hedin(199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자신감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청소년 사회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게 된다.

세 번째, 삶의 질은 자신의 삶의 가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다른 자원봉사자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인 개인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김범수, 2007). 국내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강경림, 2004; 남경인, 2005),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와 경력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 종류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최지원, 2001). 또한, 어릴 때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및 삶의 질의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유경, 2002),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 대인관계의 중요성 인식,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 기회, 의미있는 삶의 계기,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자각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과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학래, 1996).

또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2007)에서는 자원봉사 대상자나 기관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관계심리학적인 사회성개발도 언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대상자의 측면에서 보는 봉사학습은 만남과 맺음, 나눔과 주고받음, 느낌과 공유 그리고 새로움과 전통의 상호의존적 관계학습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봉사학습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대상자간에 인간적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한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시되는 학습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자기발견의 학습기회가 되고, 자원봉사 대상자는 도움을 통해 타인 발견의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봉사학습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직적인 기회와 함께 인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적 교육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대인관계를 향상시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를 개선시킨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 내로 이민족의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종이나 타민족을 포함한 타인을 수용하는 정도를 개

www.kci.go.kr

선하여(김승일, 2000; 오성배, 2006) 우리 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의식을 개선 할 수도 있다(Buckley, 1967; 이혜원, 2006).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성개발 요소로 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타인수용은 한 개인이 다른 사물이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또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Coms와 Snygg (1959)에 의하면 타인수용은 개인의 성격특성 및 자신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타인수용이 높은 사람은 사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행동하며, 관심 있는 타인의 행동에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행하고자 하는 개인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 자기 발전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타인수용이 낮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손상을 가져와 스트레스, 생활의 불안정, 그리고 비능률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 실제로 타인수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행위에 긍정적이게 때문에 타인과 원만하여 충분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 사회적지지 능력이 성숙해지며,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향상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력을 가진다고 한다(안덕자, 1970). 따라서 타인수용 능력을 증대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심성계발 훈련을 통하여 타인수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김선웅, 1989; 강신민, 1991),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인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이다. 즉,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서 교육과 사회화 과정 속에서 타인 수용 능력이 증대되고, 이는 현대인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김동배, 2005).

두 번째,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참여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 간의 질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대하고, 자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투여하고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Richardson, 1983). 우리는 이를 개인체계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체계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성숙, 변화과정을 겪고,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며, 전체로서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체계의 성장과 발전은 사회체계를 통해 구현되며, 다양한 사회조직의 모형과도 연관이 된다(Buckley, 1967).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건전한 개인체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최명숙, 2004). 또한 사회적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평가할 때, 활동의 질적인 향상은 사회의 공공복지증진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킨다(최미애, 2001). 특히, 청소년시기의 자원봉사활동이 기여하는 바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면 사회성발달에 도움을 주어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김남순, 1997).

세 번째, 민주시민의식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완전한 참여자로써 꼭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사회참여정신과 행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기간의 민주주의적 토양과 문화 속에서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행동화되

www.kci.go.kr

고 습관화되는 것이다(이해주, 1996). 즉,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체험학습을 통해 보람있는 경험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공선을 구현하는 시민공동체의 창조와 유지를 위해 민주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주시민적 태도는 사회를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시민행동(civic action)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모경환 외, 2009).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아 정체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정성을 나타내는 도덕성,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성 발달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강수정, 2001), 이것은 송복임(200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시민의식은 다문화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이기에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이후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 개선정도를 검증할 것이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참가하기 전에 이들이 개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기 실현적 동기(자기개발/사회성개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사회 계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휘일, 2002). 비슷한 개념으로서 자원봉사의 임파워먼트(Spritzer, 1995)나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내재화하는 의미성이 충족되어 결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Francies, 1982).

우선,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의미성을 내재화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방된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유목화하기 위해서 앞서 필요한 순차적 자료 수집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예비연구를 통해 이들이 응답한 다양한 질적 자료를 문장 단위로 유목화하는 세분화된 절차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에 대한 일정한 시간적 경과는 편향을 야기할 만큼 큰 영향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비교적 학기 단위로 생활양상이 구분되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퇴학이나 졸업과 같이 큰 사건이 결부되어 있지 않는 한, 이들의 심리적 과정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지향성을 뒤집을 만한 큰 사회적 쟁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예비연구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문장형 문항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연구대상

예비연구에서는 2차례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예비조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대학생 총 219명(남 100, 여 119)의 응답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모두 8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상태이며,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통해 비교적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인 동기로 참여한 대상자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자료는 2009년 3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24일까지 약 8개월간 2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활동하는 평균 연령 21세(남 22세, 여 21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총 428명(남 193, 여 235)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자료는 2010년 9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1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활동하는 평균 연령 22세(남 22세, 여 21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총 280명(남 124, 여 156)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절차

우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의미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항선정을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사용한 문항은 단문항(“여러분이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이며, 수집된 219명의 응답 자료를 유사한 의미별로 분류하여 16 문항을 선정하였다. 분류작업은 Francies 1982)와 Moore(1985)가 제시하는 자원봉사 동기-욕구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휘일(1991)의 연구에서 언급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16문항)와 동질적인 속성에 근간을 두었다. 또한, Thomas와 Velthouse(1990)의 이론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나 효능감에 관한 심리적 요인인 개인 역할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Spritzer(1995)의 임파워먼트 척도(12문항)를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에 관련한 특성에 초점을 두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개발을 위한 원칙은 대상연령에 적절한 하위요인별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불필요한 요소의 중복을 최소화하며, 최초 개발한 문항들을 2차례에 걸친 델파이분석과정을 통해 1문항을 제거하였고, 최종 15문항을 최종 개발하였다. 델파이분석[1] 과정은 우선 1차 예비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통해 순위를 16개의 문항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도록 실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는 한 문항(“내가 안고 있던 죄의식이나 부담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을 제거하였다. 전체 문항의 평균은 8.0이었고, 제거된 문항의 평균 순위는 13.59였다. 참고로,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다.

다음으로는 예비 연구를 통해 최종 선택한 15개의 문항들이 Shindler-Rainmain과 그의 동료(1984)에서 주장하는 만족도에 근거하는 요소

1) 1940년대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Kapl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기법 중의 하나이며, 결정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익명적 결정과 반복수행,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합의된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도 전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맞기는 집단협의 방식이다.

www.kci.go.kr

표 1. 자원봉사활동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성 문항

최종 선정 문항	순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4.62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인간애를 배우게 된다.	6.49
타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줄거나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	8.34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준다.	8.29
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5.09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6.93
사회적인 시설이나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8.49
이사회의 장애우시설과 그들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8.43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9.74
타인의 심정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7.10
자신의 인성을 개선하게 한다.	8.95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8.15
나와 다른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7.41
내게 주어진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8.53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7.88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문항을 근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측정문항들은 실제로 모든 문항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휘일(2002)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로 구성된 구도 형태를 잠재적으로 수용하고자 2-3개의 요인으로 추출될 확률이 많은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권세혁, 2005). 회전방식으로는 Kaiser가 제안한 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각 열 내의 부하량의 제곱 값이 최대화하는 방식이어서 직각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문항 간 차이에서 간명도는 낮지만 요인 간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을 통해 같은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 간의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나서 가지게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결과적으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에 활용된 15개의 문항들이 2개의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문항들(“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준다.”, “도움을

www.kci.go.kr

표 2.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부하량	
	요인 1	요인 2
4.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준다.	.854	.118
6.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744	.308
5. 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721	.347
15.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675	.298
1.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653	.339
2.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인간애를 배우게 된다.	.610	.461
11. 자신의 인성을 개선하게 한다.	.576	.433
14. 내게 주어진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391	.830
8. 이 사회의 장애우 시설과 그들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278	.741
7. 사회적인 시설이나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083	.735
13. 나와 다른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355	.668
3. 타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줄거나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	.415	.654
12.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392	.605
9.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479	.576
10. 타인의 심정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492	.538
eigen value	4.55	4.47
설명량(%)	30.33	29.80
신뢰도(α)	.89	.90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인간애를 배우게 된다.", "자신의 인성을 개선하게 한다.")에 대한 요인은 '개인적 의미'이라고 명명 하였고, 설명량은 30.33%였으며,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나타난 문항들("내게 주어진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 사회의 장애우 시설과 그들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인 시설이나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나와 다른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줄거나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타인의 심정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한 요인은 '사회적 의미'라고 명명 하였고, 설명량은 29.80%였으며,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요인들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www.kci.go.kr

중복 부하되는 문항이 나타났다. Tabachnick와 Fidell(2001)이 제안한 적정 기준에 따르면 부하값이 .32 이상이면 해당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문항이 10% 이상이면, 공변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소 중복 문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상자들로 하여금 위계적으로 선택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과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이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라는 이 두 가지 주성분으로 요인 분석하는 과정을 지지하여 이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의미성 척도를 두 개의 요인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후, 전체모형의 누적 설명비율은 60.14% 였으며, 모형의 유의성을 보여주는 KMO (Kaiser-Mayer-Olkin)값도 .871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Bartlett 검정결과도 유의하게 확인되면서 (4278.17, $p < .01$),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해서 KMO 값이 .8 이상이고, Bartlett의 p 값이 .05 이하로 나타났기에 사용된 변수와 사례수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며, 변수들이 요인분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χ^2 검증결과,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chi^2 = 392.24$, $p < .001$), 이는 표집단이 모집단과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분석에 활용하는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와 상대적합도지수(relative fit index)를 모두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절대적합도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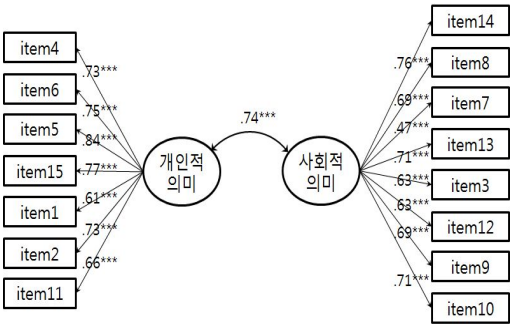

그림 1.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에 존재하는 분산/공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모델이 없는 경우의 설명량과 비교하여 계산한 추정치이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비교하였다. 상대적합도지수는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모델이 모집단에서 관찰변인들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델, 즉 변인들 간의 공분산이 모두 0으로 설정된 기저모델(baseline model)과 비교하여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지를 평가해주는 비교부합도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NNFI(non-normed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비교하였다(표 3 참조).

적합도 지수의 평가 기준은 연구자들마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RMSEA 값은 .1보다 낮은 값이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05 이하는 매우 좋은 자료이며 .01 이하는 뛰어난 자료라고 판단한다(Steiger, 1990). 그리고 GFI, AGFI, NFI의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 200 이상에서 .9보다

www.kci.go.kr

표 3.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RMSEA	NNFI	NFI	CFI
연구모형(1)	392.24***	89	.83	.79	.11	.84	.83	.86
수정모형(2)	134.53***	70	.94	.90	.06	.96	.94	.97
모형1: 모형2	257.71***	19	-	-	-	-	-	-

***$p < .001$

높으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권세혁, 2005; 양병화, 2006). NNFI와 CFI의 값 역시 .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Bentler, 1990).

한편, 의미성 척도의 문항은 조휘일(2002)가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차원이 동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는 각 문항들 간에 어느 정도 공변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에서 이용한 AMOS 18.0 프로그램은 관측변수간의 상관계수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표집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의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부하량이 다소 중복되는 문항과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단, 수정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관측변인들 간의 오차항의 공변계수만을 고려하여 통제하였고 요인의 오차항은 통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일반적인 타당성 범위(.8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준은 양병화(2006), 문수백(2009)가 언급한 판단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Bentler와 Bonett(1980)의 카이자승 차이검증을 통해서 수정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초기 연구모형과 수정모형[2]의 카이자승차이는 257.71(392.24-134.53)이며, 자유도 19(89-70)를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었던 Thomas와 Velthouse(1990)의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적 요인인 개인 역할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Spritzer(1995)의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부요인으로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의미성이란 개인의 기준이나 이상에 비교해 판단되는 업무 목표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활동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역량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한다. 그리

2) 본 연구에서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모형을 고려하였으며, Lisrel에서의 수정모형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는 단지 경로선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존하는 공변만을 통제하여 공변량을 최소화한 경로 및 모형의 구조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www.kci.go.kr

표 4.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요인과의 상관계수 비교

	임파워먼트 척도				자원봉사만족도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	영향력	
개인적 의미	.61***	.49***	.58***	.45***	.78***
사회적 의미	.56***	.55***	.48***	.60***	.74***

***$p < .001$

고 자기결정성은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며, 영향력은 사회적 성과나 타인관의 관계성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이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의 중요성, 업무적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중요성, 기관 혹은 조직에서 중요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봉사활동에 부여하는 의미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의 값은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과의 상관계수는 .53(p < .001)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 참조).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Francies(1982)가 제시하는 자원봉사 동기-욕구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휘일(1998)의 연구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김영수, 1995),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주문희, 2000)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16문항으로 수정하여 공인타당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과 상관계수는 .75(p < .00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 참조).

연구 2

연구 2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이후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 개선정도를 검증할 것이다. 먼저, 봉사활동 그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며, 동시에 연구 2에서 개발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를 활용하여 이 척도가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설계 방안을 기반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전/후 태도변화와 자원봉사활동 의미성이 태도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비교할 것이다. 여기서, 전/후 태도변화는 반복측정이지만 회기점이 두 개뿐이고, 분석의 방향에서도 t-검증과 논리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측정검증 방식 대신 전/후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한 태도 척도는 크게 자기개발 요소와 사회성개발 요소의 2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자기개발 요

www.kci.go.kr

소는 자기평가,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3가지 변인으로 구성하고, 사회성개발 요소는 타인수용, 타인종에 대한 태도,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의 4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였을 때,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높은 설명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만족한 활동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인지부조화 과정을 경험하여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스스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정배, 2006).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역시 기존의 봉사활동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의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해 보았다.

가설 1.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자기개발 요소(자기평가, 자아존중감, 삶의 질)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 2.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사회성개발 요소(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 3. 자원봉사활동 이후,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성이 높으면 자기개발 요소(자기평가, 자아존중감, 삶의 질)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 4. 자원봉사활동 이후,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성이 높으면 사회성개발 요소(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가 개선될 것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비교검증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 대상을 제외하고, 최근 4개월간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던 대상 선별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평균 연령 22세(남 22세, 여 21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총 947명(남 461, 여 486)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의 누락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으며, 자원봉사활동은 대체로 다문화 관련 자원봉사와 비관련 자원봉사로 구분되었으며, 다문화 관련 자원봉사자는 30% 이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통합하여 태도변화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은 일손돕기, 위문활동, 지도상담, 캠페인활동, 구호활동, 환경보전, 사회개발의 7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50%이상의 대부분이 일손돕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3)]

측정도구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연구 1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의미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

3) 실제로 응답자의 52% 이상이 일손돕기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집단별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모든 측정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통제는 실시하지 않았다.

www.kci.go.kr

자기평가

Phillips(1951)의 자아수용도(Self-Acceptance Scale)검사를 박종권(1986)이 번안하였고,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차명숙(2005)이 보완한 자아수용 검사지(25문항)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자아수용이라는 척도는 기본적으로 문항을 검토해보면 자기 평가에 대한 문항이 대다수다. 또한, 학술세미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자아수용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자기평가라고 명명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로 보았을 때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자문위원의 견해였다. 이런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라고 명명하였다. 애매한 문항을 제거하고,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문항 23개를 구성하였으며, 검사 문항은 모두 부적 척도로 형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에 대한 부적 평가를 의미한다. 즉, 높은 점수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수용하여 부정적으로 자기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검사는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평가점수가 낮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역척도화 하여 점수가 높으면 자기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Coopersmith(1967)에 의해 제작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2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평가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문항 채점은 역으로 계산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의미 하는 것으로 노유자(1988)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하여 각 31문항에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의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타인수용

타인수용 측정 도구는 Fey(1955)의 타인수용도(Acceptance of Others)의 검사를 박종권(1986)이 번안하였고,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명숙(2005)이 수정한 타인수용 검사지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점수는 타인의 약점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높은 점수는 타인의 약점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타인의 약점을 수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수용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www.kci.go.kr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김동배와 조학래(1997)가 사용한 20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타성에 관한 10개 문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이란 개념은 말 그대로 '민주적인(democratic)'이란 단어와 '시민성(citizenship)'이란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결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송복임(2002)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8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봉사활동 전/후 차이검증 결과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봉사활동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생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자기개발 및 사회성개발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먼저, 봉사활동이 자기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표 5 참조), 봉사활동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을 때, 오히려 봉사활동 후 집단(M = 4.30)이 봉사활동 전 집단(M = 4.41)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봉사활동 후 집단(M = 4.62)이 봉사활동 전 집단(M = 4.68)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은 봉사활동 후 집단(M = 4.73)이 봉사활동 전 집단(M = 4.75)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이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봉사활동 전/후 자기개발 요소의 차이검증

종속변인	봉사활동 전 M(SD)	봉사활동 후 M(SD)	t
자기평가 (N=932)	4.41(.89)	4.30(.95)	4.73***
자아존중감 (N=941)	4.68(.79)	4.62(.78)	3.81***
삶의 질 (N=923)	4.75(.76)	4.73(.80)	1.13

***$p < .001$

표 6. 봉사활동 전/후 사회성개발 요소의 차이검증

종속변인	봉사활동 전 M(SD)	봉사활동 후 M(SD)	t
타인수용 (N=940)	4.11(.59)	4.01(.58)	6.12***
공동체의식 (N=938)	4.62(.67)	4.50(.63)	6.87***
민주시민의식 (N=347)	5.09(.69)	5.07(.76)	.37

***$p < .001$

www.kci.go.kr

봉사활동이 타인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을 때, 오히려 봉사활동 후 집단(M = 4.01)이 봉사활동 전 집단(M = 4.11)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체 의식 역시, 유사하게도 봉사활동 후 집단(M = 4.50)이 봉사활동 전 집단(M = 4.62)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시민의식은 봉사활동 후 집단(M = 5.07)이 봉사활동 전 집단(M = 5.09)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회귀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을 전체 의미성, 개인적 의미성, 사회적 의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전체 의미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기개발 및 사회성개발 정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우선, 자기개발 요소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7 참조). 즉,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전반적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자기평가와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의 전체 의미성이 사회성개발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8 참조). 즉,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전반적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의미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기개발 및 사회성개발 요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우선, 자기개발 요소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9 참조).

즉,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개인적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자기평가와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의미성이 사회성개

표 8. 전체 의미성 예측변인의 사회성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R	R^2	adj. R^2	B	beta
타인수용	.16***	.02	.02	.10	.16***
공동체의식	.50***	.25	.25	.34	.50***
민주시민의식	.57***	.32	.32	.44	.57***

***p < .001

표 7. 전체 의미성 예측변인의 자기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R	R^2	adj. R^2	B	beta
자기평가	.10**	.01	.01	.10	.10**
자아존중감	.30***	.09	.09	.25	.30***
삶의 질	.39***	.15	.15	.33	.39***

**p < .01, ***p < .001

표 9. 개인적 의미성 예측변인의 자기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R	R^2	adj. R^2	B	beta
자기평가	.11**	.01	.01	.10	.11**
자아존중감	.31***	.10	.10	.24	.31***
삶의 질	.40***	.16	.16	.31	.40***

**p < .01, ***p < .001

www.kci.go.kr

발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0 참조). 즉,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개인적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의미성의 설명량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가설을 위해할 만큼 큰 영향력은 아니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성은 자기개발 요소는 증가하였지만, 사회성개발 요소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의미를 강하게 내재화한다면, 자기개발 요소가 증대되는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기개발 및 사회성개발 요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우선, 자기개발 요소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1 참조). 즉,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사회적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자기평가와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성이 사회성개발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2 참조). 즉,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사회적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타인수용,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의미성의 설명량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가설을 축소할 만큼 큰 영향력은 아니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성은 자기개발 요소는 감소시켰지만, 사회성개발 요소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를 강하게 내재화한다면, 사회성개발 요소가 증대되는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개인적 의미성 예측변인의 사회성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R	R^2	adj. R^2	B	beta
타인수용	.15***	.02	.02	.08	.15***
공동체의식	.45***	.20	.20	.28	.45***
민주시민의식	.50***	.25	.25	.36	.50***

***$p < .001$

표 11. 사회적 의미성 예측변인의 자기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R	R^2	adj. R^2	B	beta
자기평가	.08*	.01	.01	.08	.08*
자아존중감	.26***	.07	.07	.21	.26***
삶의 질	.35***	.12	.12	.30	.35***

*$p < .05$, ***$p < .001$

표 12. 사회적 의미성 예측변인의 사회성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R	R^2	adj. R^2	B	beta
타인수용	.15***	.02	.02	.09	.15***
공동체의식	.51***	.26	.26	.34	.51***
민주시민의식	.59***	.35	.35	.47	.59***

***$p < .001$

www.kci.go.kr

종합 논의

연구 1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마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적합도와 공인타당도 검증 결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척도 개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두고자 한다.

우선, 문항을 비교한다면 Moore(1985)가 언급했던 다양한 수준에서의 만족도와 의미간의 연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으며, 특히, Francies(1982)의 두 가지 동기에서 만족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Thomas와 Velthouse(1990)가 강조한 가치나 의미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구성되었는지를 알고,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자원이 제공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면서 요인을 선정하는 관점은 앞서 언급한 조휘일(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을 고려한다면, 자원봉사활동 효과의 설명력은 자원봉사활동 당사자들이 평가자로서의 기준을 섭렵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하게 기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는 개인의 기대 수준을 점검하는 도구로서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는 공공기관 및 단체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운영조직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 면을 확대시켜 줄 것이다. 즉,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이후 만족도에 대한 평가 및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동기적 의미의 추구 방향에 따라 유형별 자원봉사활동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으로의 연구 과정에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의한 애매한 설명보다 내재된 의미에서 시작되는 심리적 반응 및 그 결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으며, 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동기적 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된 척도가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혹은 그 효과의 메커니즘은 어떤 과정을 통해 흘러가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빈도수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당사자들에게도 봉사활동의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렇다면, 과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을 예측변수로 했을 때 얼마나 설명력이 증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유무와 의미성 간의 설명력을 비교 검증하였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안 점

www.kci.go.kr

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크게 자기개발요소와 사회성개발요소로 구성하여 각각의 개선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봉사활동 자체의 영향력과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의 영향력 서로 대비시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활동 그 자체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태도변화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봉사학습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봉사활동 그 자체의 영향력 검증에서 자기평가, 자아존중감, 타인수용, 공동체의식은 오히려 예상했던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이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진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발 요소의 개선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이후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의미성이 실재적인 개선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의미성이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자기평가나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질적인 측면이 모두 긍정적 개선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내재화 되는 의미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를 기대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여 봉사활동을 제공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이 높을수록 사회성개발 요소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의미성을 내포하게 된다면,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소양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가 이미 타인을 수용하고, 사회공동체의 공동선을 최우선시하는 성향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사회적 통합 효과의 증대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단체 및 기관들이 이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의 영향력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대학생들이 실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평가 기록은 거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즉, 명목상의 자원봉사와 심리적 차원의 자원봉사의 효과는

www.kci.go.kr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의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실천했던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이러한 의의는 본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대학생 대상에게만 논의점이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앞으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개선효과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프로그램 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자원봉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문제적 쟁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타인수용능력은 다문화주의 수용이나 타민족 및 타인종에 대한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구성타당성을 고려한 연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림 (2004). 자원봉사활동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수정 (2001).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인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신민 (1991). 심성계발훈련이 아동의 자아수용 및 타인수용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종구 (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세혁 (2005). SPSS활용 다변량데이터분석. 한남대학교출판부.

김남순 (1997). 사회 자원봉사 활동의 이론과 실제. 경기: 교육 과학사.

김남희 (2004). 원주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배 (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학지사.

김동배, 김선아, 이서원, 장신재, 조학래 (2009). 자원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동배, 조학래 (1996). 청소년 자원봉사의 길잡이. 서울: 동인.

김문조, 김원동, 서용석, 김혜영 (1995). 한국 청소년의 의식세계.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김범수 (2007). 자원봉사론. 서울: 학지사.

김선웅 (1989). 훈련집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어린이의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일 (2000). 삼민주의. 서울: 범우사.

김영모 (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강원: 한림과학원.

김영수 (1995). 민주 시민론. 서울: 법문사.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김정배 (2006). 청소년의 봉사활동 태도와 동기 및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숙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대인 및 사회적 책임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www.kci.go.kr

김현식 (2000). 육군사병의 사회봉사활동이 인성개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경인 (2005).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유자 (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임정수(역) (2009): 다문화 교육 입문, In. Banks, James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d*. 아카데미프레스.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박건실 (201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19(2), 211-235.

박은수 (2003). 무보수성의 재검토. 볼런티어, 1309(5). 전석불지재단 대구볼런티어센터.

박종권 (1986). 중학생의 자아수용정도와 타인수용정도에 따른 학업성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봉연 (1999).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송복임 (200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의식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덕자 (1970). 지각향상 및 개념형성단계로 측정한 효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양창삼 (1995). 사회봉사의 철학과 기능: 대학의 사회봉사. 서울: 한양대 출판원.

오성배 (2006).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명위 (1995).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참여욕구에 관한 연구: 부천시 재가복지봉사 센터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록 (2007). 자원봉사 활동관리 이론과 실제. 서울: 다빈치하우스.

이유경 (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자아정체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석 (1995). 사회과 학습 목표로서 '시민성 원리'와 내용 구성방법으로서 '통합성 원리'에 대한 사적 고찰: 사회과 성립 과정 시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20, 173-191.

이해주 (1996). 사회교육 참여와 민주시민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혜원 (2006). 청소년의 자원봉사동아리 활동 만족도와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덕기 (2001). 자원봉사의식과 봉사활동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명숙 (2006).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29-146.

정태연, 전경숙, 박은미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한국 사회의 맥락과 과제: 공동체의식의 함양에서 본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469-485.

조학래 (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www.kci.go.kr

조휘일 (1998). 자이실현과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조휘일 (2001).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 서울: 학지사.

조휘일 (2002).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주문희 (2000).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성수 (2005). 자원봉사: 이론, 정책, 제도. 서울: 아르케.

차명숙 (2005).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수용 및 타인수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명숙 (2004). 중학생의 봉사활동 후 반성방식에 따른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의식향상비교.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미애 (200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 용, 김향선, 진화미, 김승의, 강정미 (2005). 자원봉사의 이해. 대구: 형설출판사.

최지원 (2001).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 미국대학과 사회봉사, 19-37.

허성호 (2012).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발 및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성호, 정태연 (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43-164.

허성호, 정태연 (2011). 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3), 287-304.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 107*, 238-246.

Buckley, W. F. (1967). *Sociology and Modern System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Combs, C. H. & Snygg, D. (1959).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Conrad, D. & Hedin, D. (1991). School-based community service: What we know from research and theory. *Phi Delta Kappan, 72*, 743-749.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Fey, W. F. (1955). Acceptance by others and its relation to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A re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 274-276.

Francies, G. R. (1982). The Volunteer Needs Profile. University of Wisconsin.

Hall, C, & Lindzy, G. (1957). *Theories of Personality*. Wiley, New York

Ilsley, P. J. (1990).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Knowles, M. S. (1982). Motivations in Voluntarism: Synopsis of a Voluntary Action News. *Voluntary Action Center, 31*, 3.

Koury, R. L. (2001). *Part-time and full time gifted programs: A comparison of third, fourth, and fifth grade students' self-esteem*. The Temple university, Doctor of education.

www.kci.go.kr

Markus, G. B., Howard, P. F. and King, D. C. (1993). Integrating Community Service and Classroom Instruction Enhances Learning: Results From an Experi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5*, 410-419.

Moore, L. F. (ed.) (1985). *Motivation Volunteers*. The Vancouver Volunteer Center.

Phillips, C. R. (1951). Attitudes toward self and others: A brief questionnarie repor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5*, 79-81.

Richardson, A. (1983). *Participation*. London: Routlege & Kegan Paul.

Schindler-Rainman, E. & Lippit, R. (1984). *The Volunteer Community: Creative Use of Human Resource*. San Diego: University Associates.

Smith, D. H. (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A Literature Review.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 10-57.

Spitzer, W. J. (1995). Effective leadership: The healthcare social work director. *Social Work in Health Care, 20*, 89-109.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80.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Allyn and Bacon.

Thomas, K. W. & Velthouse, B. A. (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666-681.

Williams, N. R., King, M., & Koob, J. J. (2002). Social Work Students Go to Camp: The Effects of Service Learning on Perceived Self-Efficacy. *Journal of Teaching on Social Work, 22*, 55-70.

Wilson, M. (1975). *The Effective Management of Volunteer Program.* Colorado: Volunteer Management Associates.

논문 투고일 : 2013. 01. 31
1 차 심사일 : 2013. 03. 07
게재 확정일 : 2013. 05. 16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2, 133～158.

Effects of volunteer activities on self-development and sociability-development of undergraduates: focus on meaning of volunteering

Hu, Sungho **Jung, Tae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the impacts of volunteer activities on self-development and sociability-development. In study 1, the scale comprised of 15 items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meaningfulness of volunteer activitie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obtained from 428 undergraduates (193 males and 235 femal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then conducted on the data obtained from 280 undergraduates (124 males and 156 females). In study 2, the impacts of volunteer activities on 947 undergraduates (461 males and 486 fema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self-development and sociability-development. Self-development consisted of self-evaluat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Sociability-development consisted of pother-acceptances, sense of community, and democratic citize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not more volunteer activities itself but more meaningfulness of those activities had stronger relations with self-development and sociability-development. Finally, a values of the undergraduates internalized for volunteer activities and their levels of self-development and sociability-development expect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undergraduates volunteering, meaningfulness of volunteer, self-development, sociability-development

www.kci.go.kr